

야구 오심·축구 무득점... 속 터진 토요일

KIA 김호령 수비, 아웃이 2루타로
키움에 3-4 통한의 역전패
양현중, 시즌 9승 도둑 맞아
팀 순위, 멀어지는 5위



답답한 코로나 19 상황에서 야구로 위안을 찾던 KIA 타이거즈 팬들은 밤새 야구 게시판에 아쉬운 마음을 토로했다. 월리엄스 감독도 토요일밤 같은

영상을 보고 또 봤다. 월리엄스 감독이 "100번은 돌려본 것 같다"고 언급한 영상은 김호령의 호수비가 2루타로 둔갑한 오심 장면이었다.

KIA는 지난 22일 고척스카이돔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시즌 10차전을 치렀다. KIA에는 승리가 절실했던 경기였다.

한 주의 시작이었던 지난 18일 LG 트윈스와 원정 경기를 치른 KIA는 마무리 전상현이 흔들리면서 역전 끝내기 패를 당했다. 19일 수비 실수 연발 속 1-10 대패를 당한 KIA는 안방에 돌아와서도 연패를 끊지 못했다. 장단 21안타로 NC 다이노스에 14점을 내준 KIA는 21일에도 충격의 패배를 기록했다.

8회말 나지완의 동점 스리런이 나왔지만 9회초 전상현이 송구실책까지 더해 5실점(1자책)을 기록하고 강판됐다.

충격의 4연패 속 다시 먼 길을 간 KIA는 최근 상승세의 양현중을 앞세워 연패 끊기에 나섰다.

분위기는 좋았다. 1회초 공격에서 선두타자 최원준이 상대의 실책으로 걸어간 뒤 터커-최형우-나지완의 3연속 안타가 나왔다. 키움 선발 김태훈에게 3점을 뽑아내면서 1회를 시작했고, 양현중도 침착하게 무실점으로 마운드를 지켜냈다.

6회까지 4피안타 2볼넷 5탈삼진의 호투를 기록한 양현중이 7회 2사 1-2루에서 몰라났다. 좌완 이준영이 중견수 플라이로 남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처리하



양현중

면서 3-0 리드를 지켰고, 양현중의 3연승과 팀의 4연패 탈출이 눈앞에 다가온 것 같았다.

하지만 8회말 토요일밤을 뜨겁게 달군 호수비와 오심이 동시에 나왔다.

장현식이 팀의 세 번째 투수로 들어가 김호령을 우익수 플라이로 처리했다. 그리고 문제의 장면이 나왔다.

키움 이정후의 타구가 멀리 외야로 향했다. 2루타성 타구였지만 KIA 중견수 김호령이 담장 앞에서 뛰어올라 공을 낚아챘다.

멋진 호수비를 펼쳤지만 김호령은 웃지 못했다. 최수원 2루심이 인정 2루타로 판정된 탓이다.

김호령이 바로 공을 잡았지만 2루심은 포구 이후 과정에서 공이 담장에 닿았다고 본 것이다. 클러브가 담장에 부딪혔지만 직접 공이 담장에 닿지는 않았다.

월리엄스 감독이 항의를 위해 그라운드에 나왔지만 결과를 되돌릴 수는 없었다. KIA가 앞선 이닝에서 두 번의 비디오 판독 기회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이다.

이후 장현식이 흔들렸다. 볼넷에 이어 김용민의 안타로 실점했다. 이어 허정협에게 역전 스리런을 맞으면서 1회부터 이어졌던 리드를 뺏겼다. 결국 경기는 3-4 역전패로 끝났고, KIA는 5연패에 빠졌다.

경기 후 심판진은 KBO를 통해 오심을 인정했다. 하지만 이미 었질러진 물이 됐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고 말하지만 KIA에는 통한의 오심이 됐고, 월리엄스 감독은 잠 못 이룬 채 김호령의 수비 장면을 보고 또 보면서 아쉬움을 곱씹어야 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11개 슈팅 퍼붓고 무득점

'K리그 1' 윌리안 4차례 득점 기회 무산 서울에 0-0...홈 첫 승 무산

경기 종료 직전 회심의 원발 슈팅마저 골대를 스쳐 지나가자 광주FC 윌리안은 그대로 자리에 주저앉았다. 땅을 치던 윌리안 그리고 광주의 잠 못 이룬 토요일 밤이었다.

광주는 22일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FC서울을 상대로 2020 K리그 1 17라운드 경기를 치렀다.

최용수 감독이 자진 사퇴한 뒤 젊은 피로 재장비한 서울은 최근 3연승에 성공한 '강적'. 광주는 시작부터 강하게 상대를 몰아붙였다.

세 경기 연속 무패 중인 광주에는 '새 안방 첫 승'이라는 중요한 목표가 있었다. 박진섭 감독의 '맞춤형 전략'도 결집여진 공세였다.

K리그1에서 첫 시즌을 맞은 박 감독은 '생존'을 위해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다. 원정은 안정적인 운영으로 승점을 더하는 데 집중하고, 홈에서는 공격적으로 승리를 노리는 게 박 감독의 전략이다.

박 감독의 전략대로 광주 선수들은 편안하고 익숙한 안방에서 공격적으로 나섰다.

전반 9분 엄원상의 패스를 받은 펠리페의 슈팅을 시작으로 광주가 움직였다. 16분에는 두현석의 시원한 오른발 슈팅이 나왔다. 서울 골대를 향하던 공은 아쉽게 골대를 맞고 튀어 나왔다.

16라운드 베스트 11에 빛나는 윌리안의 움직임도 돋보였다.

골대를 때렸던 두현석이 이어진 공격에서 윌리안에게 패스를 했다. 윌리안은 골키퍼를 앞에 두고 슈팅을 시도했지만 아쉽게 양현민에게 막혔다. 전반 28분 임민혁도 슈팅에 가담했지만 공은 골키퍼 품에 안겼다.

후반에도 윌리안이 그라운드를 휘젓었다.

후반 시작과 함께 두현석의 크로스를 헤더로 연결했지만 골대를 비켜났다. 후반 4분에는 펠리페의 힐패스를 받아 오른발 슈팅을 했지만 골키퍼 손끝에 걸렸다.

후반 12분 엄원상이 특급 스피드로 골대 정면까지 진입했지만 슈팅 순간을 놓쳤다. 김효기의 타닝샷까지 쉴 새 없이 광주가 서울 골대를 두드렸다.

그리고 후반 34분에는 연달아 세 차례 아쉬운 탄성이 쏟아졌다.

엄원상의 슈팅이 골키퍼를 맞고 나오자 바로 박정수가 두 번째 슈팅으로 연결했다. 하지만 수비수 맞고 다시 공이 굴절됐고 마지막으로 김창수까지 달려들어서 슈트를 시도했지만 아쉽게 골대를 벗어났다.

후반 추가 시간 윌리안이 헤더를 시도했지만 실패, 1분 뒤 다시 윌리안에게 시선이 집중됐다.

중앙에서부터 공을 몰고 올라간 윌리안이 회심의 원발슈팅을 날렸다. 하지만 이번에도 골은 골대를 스치고 말았다.

마지막 기회마저 무산되자 윌리안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자리에 주저앉았다. 땅을 치면서 한참을 앓고 있던 윌리안의 모습에서 진한 아쉬움을 느낄 수 있었다.

결국 11개의 슈팅을 퍼붓으며 서울을 공격한 광주는 0-0 무승부로 경기를 마감해야 했다.

박진섭 감독은 "윌리안이나 엄원상 선수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은데 골이라는 게 넣고 싶다고 넣는 게 아니고 골대 맞는 불운도 있었다"며 "그렇기 때문에 골대 앞에서 더 세밀하고 침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잠 못 이룬 시간을 돌아봤다. /김여울 기자 wool@

'광현진 특급 활약' 해피 선데이

<김광현+류현진>



류현진, 탬파베이전 5이닝 1실점·2경기 연속 무볼넷... 팀은 1-2 패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토론토 블루제이스)이 정교한 제구를 뽐내며 잘 던졌지만, 승패 없이 강판했다.

류현진은 23일 열린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탬파베이 레이스와의 방문 경기에 선발 등판해 5이닝 동안 안타 3개를 맞고 1실점으로 역투했다.

삼진을 6개를 빼앗겼고, 두 경기 연속 볼넷을 허용하지 않고 임무를 마쳤다. 평균자책점은 3.46에서 3.19로 좋아졌다.

5회까지 94개의 공을 던진 던진 류현진은 1-1로 맞선 6회말 윌버 폰트에게 배턴을 넘겼다.

지난달 25일 정규리그 개막전에서 4.2이닝 3실점으로 승패 없이 몰려난 탬파베이를 상대로 다시 같은 마운드에 선 류현진은 탬파베이전 통산 첫 승리를 향해 나섰지만, 아쉽게도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

탬파베이 한국인 타자 최지만이 선발라인업에서 빠지면서 투타 대결은 이뤄지지 않았다.

공 12개로 1회 세 타자를 가볍게 요리한 류현진은 2회 선두 타자 호세 마르티네스에게 우선상에 떨어지는 안타를 맞았다.

첫 안타를 내줬지만, 류현진은 세 타자를 땅볼 2개와 뜬공 1개

로 요리하고 2회도 무사히 넘겼다.

류현진은 개막전에서 투런 홈런을 맞은 일본인 타자 쓰쓰고 요시모토를 9구 접전 후 2루수 땅볼로 잡는 등 삼진 1개를 곁들이며 삼자범퇴로 3회를 막았다.

탄력을 받은 류현진은 탬파베이 2~4번 타자를 각각 삼진, 땅볼, 삼진으로 요리하며 4회에도 승승장구했다.

5회초 타선이 1점을 뽑은 직후에 류현진이 월리 아다메스, 조이 웬들에게 연속 안타를 맞아 무사 1-3루 위기에 몰렸다. 마누엘 마고를 2루수 땅볼로 유도해 1루 주자를 2루에서 잡고 1점과 맞바꿨다. 이어진 1사 1루에서 쓰쓰고를 루킹 삼진으로 돌려세운 류현진은 마이크 주니노도 파울탑 삼진으로 낚아 붙을 것이다.

1-1로 팽팽하던 경기는 연장 10회말에 갈렸다.

주자를 2루에 두고 공격하는 연장 승부차기에서 탬파베이는 쓰쓰고의 땅볼로 1사 3루 기회를 얻었다.

탬파베이는 최지만을 대타로 내보내 끝내기를 노렸고, 토론토 배터리는 고의볼넷으로 최지만을 걸었다. 하지만 1사 1-3루에 나온 대타 케빈 키어마이어가 끝내기 좌전 안타를 쳐 탬파베이에 2-1 승리를 안겼다. /연합뉴스



김광현, 신시내티전 6이닝 무실점 ML 첫 승...방어율 3.86→1.69

김광현(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메이저리그 2번째 선발 등판에서 완벽에 가까운 투구로 빅리그 데뷔 첫 승리의 감격을 누렸다.

김광현은 23일 열린 2020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 신시내티 레즈와의 홈경기에 선발 등판, 6이닝 동안 안타 3개만을 내주고 삼진 3개를 곁들여 무사사구 무실점 호투했다.

투구 수 83개를 기록했고, 이 가운데 55개를 스트라이크로 꽂아 넣었다.

첫 퀄리티스타트(선발 6이닝 이상 3자책점 이하)를 달성한 김광현은 팀이 3-0으로 앞선 7회초 승리투수 요건을 안고 존 겐트에게 공을 넘겼다.

경기가 그대로 3-0 리드로 끝나면서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3번째, 선발로는 2번째 등판 만에 첫 승리를 따냈다. 시즌 평균자책점은 3.86에서 1.69로 대폭 끌어내렸다.

개막전을 마무리로 시작한 김광현은 팀 동료들의 줄 부상 속에 선발로 보직을 변경했고, 지난 18일 선발 데뷔전(3.2이닝 1실점)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김광현은 메이저리그 현역 최정상급 포수 몰리나의 리드 속에

인상적인 완공 조절로 신시내티 타선을 공공 묶었다. 삼진 3개 중 2개를 루킹 삼진으로 잡아낼 정도로 몰리나의 볼 배합이 절묘했다. 수비 시프트의 도움을 여러 차례 받고, 잘 맞는 타구가 야수 정면으로 향하는 등 행운까지 따른 김광현은 감격스러운 빅리그 데뷔 첫 승리를 품어 안았다.

김광현은 1회초 선두타자 조이 보토를 풀카운트 승부 끝에 유격수 땅볼로 잡아냈다. 보토의 타구는 중전 안타성으로 보였지만 수비 시프트로 2루 베이스 오른쪽에 자리했던 유격수 토미 드먼이 편안하게 타구를 처리했다.

2점의 리드를 안고 4회초 등판한 김광현은 수비 시프트의 도움으로 선두타자 카스테야노를 2루수 땅볼로 처리했다. 데이비슨은 유격수 직선타, 수어레스는 3루수 땅볼로 잡아냈다.

김광현은 5회초 1사에서 원격의 좌중월 2루타로 처음 득점권에 주자를 내보냈지만, 카살리를 3루수 직선타로 잡으며 한숨을 돌렸다. 이어 갑비스를 루킹 삼진으로 잡아냈다.

6회초에도 마운드에 오른 김광현은 선두타자 파머에게 내야안타를 내줬지만 보토, 카스테야노, 데이비슨을 모두 외야 뜬공으로 유도하고 퀄리티스타트를 완성했다. /연합뉴스